

민주, 충청권 투표 시작... 12일간 경선 레이스 '후끈'

후보들 "공정 경쟁" 내일 첫 TV토론

26일 DJ센터서 호남권 합동연설회 이재명,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 출범 김경수, '더하기 캠프' 최재성 위원장 김동연, 첫 경선지서 '균형발전' 제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레이스가 16일 본격적인 막을 올리며 당의 대선 후보 자리를 둘러싼 12일간의 3파전 경쟁이 시작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공명선거 실천 협약식을 열었다.

이재명 전 대표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기호순)는 후보 등록 후 처음 한자리에 모여 단합된 모습으로 공정한 경쟁에 임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 전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공명선거 실천단 서약식에서 "이번 대선은 후보가 누가 되든 반드시 이겨야 한다. 역사적 책임"이라며 "경선이 배제의 과정이 아니라 함께하는 역량을 더 키우는 과정이 되도록 저 자신부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전 지사는 "역사적으로 민주당은 하나가 됐을 때 승리했고 분열했을 때 패배했다"며 "경선 후에는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자기 선거처럼 대선을 지르는 민주 정당의 문화와 관행을 정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도 "치열하게 경쟁하고 또 통 크게 단합해서 정권 교체, 그 이상의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은 선거 운동 과정에서 후보자 비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은 16일 안산시 단원구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오른쪽부터),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참석해 있다. **공동취재·연합뉴스**

방, 흑색선전, 인신공격, 허위 사실 공표 등을 하지 않을 것과 깨끗하고 치열한 경쟁, 경선 결과 승복 등을 약속하는 서약서에 차례로 서명했다.

각 후보들의 싱크탱크와 캠프도 나란히 출범했다.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은 이날 경제 성장의 선순환을 강조하며 뜻을 올렸다.

관료와 교수 중심으로 각계 전문가 500여명이 이름을 올렸다.

'경제 성장'에 방점을 찍고 활동할 계획이다.

가장 집중하는 분야 역시 미래 먹거리

로 꼽히는 인공지능(AI)이다.

오는 2030년까지 '3% 잠재성장률, 세계 4대 수출강국,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는 '3·4·5 성장전략'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했다.

상임 공동대표를 맡은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전 원장은 "첨단 과학기술과 주력 산업 분야에서 정부와 기업이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해 경제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면 경제위기 극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경수 대선 경선 후보 경선캠프인 '더하기 캠프'도 이날 공식 출범했다.

선거대책위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

심으로 불린 최재성 전 청와대 정부수석 이 맡았고, 정책 싱크탱크는 윤홍식 인하대 교수가 총괄지휘한다.

캠프 슬로건은 '다시, 함께'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정부의 민주주의 정신을 회복하고 연정으로 민심을 모아 사회 위기를 극복하자는 의지가 반영됐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AI(인공지능) 전환과 기후 경제라는 필연적 흐름 앞에서 우리만이 내세울 수 있는 '한국형 전환 모델'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AI 주권 확보와 산업의 전환에 향후 5년간 총 100조원 규모 민간 공동투자를 이

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가 이미 AI 분야 100조원 투자 공약을 내건 상태에서 김 후보 역시 정책 분야에서 '맞벌'을 놓는 모양새다.

김동연 대선 경선 후보는 이날 후보 등록 뒤 첫 지역 일정으로 충남 천안시 민주당 충남도당을 찾아 당원 간담회 등을 가졌다. 당의 첫 순회경선지인 충청 당원들의 표심을 끌어안으며, 경선 초반 상승세를 가져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는 충북 음성 출신으로, 첫 순회 경선지인 고향에서 예상보다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후보는 이 곳에서 자신의 공약인 '지역균형 빅딜'에 대해 소개하며 균형발전 에 대한 복안을 설명했다.

공약은 대기업을 지방으로 옮겨 첨단경제 도시 10곳을 만들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중점학과를 중심으로 대학 10곳을 특성화한다는 내용이다.

이날 경선 첫 일정으로 나흘간 권리당원 대상 충청권 온라인 투표도 시작됐다.

18일에는 첫 후보자 합동 TV토론회가 열린다. 19일 충청, 20일 영남, 26일 호남, 27일 수도권·강원·제주까지 권리당원 등이 참여하는 지역순회 경선이 이어진다. 호남권은 23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 투표가 진행되며, 합동연설회는 26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마지막 수도권 경선일인 27일 권역별 경선 결과와 일반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해 최종 승자가 선출된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민주 지방정부위, 산불피해지역에 성금 등 35억 전달

광주 5개 구·영암·보성 등 동참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위원장 신정훈·사진)는 16일 광주 5개 구청과 영암 등 위원회 산하 42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 경북 등 산불피해 지역에 총 35억원의 성금과 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신정훈 위원장(나주·화순)에 따르면, 산하 42개 자치단체는 경북 안동과 의성, 영양, 영덕, 경남 산청, 하동 등 대형 산불피해를 입은 9개지역 자치단체에 성금 21억원과 긴급구호물품 14억원을 전달했다.

광주시 5개 자치구를 포함해 영암군, 보성군, 고흥군, 무안군, 영광군, 장흥군,



구례군, 나주시에서 산불피해 지역에 성금과 생필품, 재해구호 세트 등을 전달했다. 성금은 지역 주민들과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모금했다.

신 위원장은 "국가적 재난 앞에서는 지역과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위원회는 지역과 정당을 뛰어넘어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총력을 기울여왔다"면서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피해지역 주민들의 빠른 일상 복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이철우 경북지사 "광주, 미래산업 수도 만들겠다"

광주서 지역발전 공약 발표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경선에 출마한 이철우(사진) 경북지사가 16일 광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발전 공약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광주는 실력이 있는 도시인데도, 국가가 제 몫을 주지 않았다"며 "광주를 문화와 첨단 포용도시,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호남과의 교류 인연을 소개한 이 지사는 "동서 화합 포럼"을 통해 양 지역의 교류와 화합의 물꼬를 트고 영·호남의 벽을 허물기 위해 그 누구보다 앞장서 왔다"며 "오늘 광주를 찾은 것도 단순한 일정이 아니라, 진심으로 광주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약속이자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주 공약으로 △송정·광주역 구간 광주선 지하화 △광주 AI 데이터센터 2단계 완성 등 K-밸리 조성 △청년·미래산업 특화 교육기관 조성 등을 제시했고, 전남은 △전남 의대유치 △고흥 제2 우주센터·위성 전용 발사장 조성 △슬라시도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조성 등을 약속했다.

'새로운 박정희, 10만불 시대'를 기치로 내세워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 지사는 이날 국민의힘 광주시당에서 호남 당원들을 만나고, 부산으로 이동한다. **정성현 기자**

헌재, '韓 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전원일치... 임명절차 정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겸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헌재는 16일 오후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제기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겸 재판관 지명 행위에 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국힘 1차 경선 8명 진출... '4강 경쟁' 전망

'탄핵·韓 출마' 찬반 구도 주목 반탄파 '합종연횡' 가능성 제기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의 첫 관문을 통과하기 위한 후보들의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16일 경선 후보에 등록된 11명의 서류 심사를 거쳐 8명의 1차 경선 참여 후보자를 발표했다.

여론조사에서 당 소속 주자들 중 선두권인 김문수·홍준표·한동훈 후보가 4강에 진출하고, 한자리를 두고 안철수·나경원 등 다른 후보들이 경쟁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1차 경선에서 주목받는 관전 포인트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반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대신 출마론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이 꼽힌다.

반탄파(탄핵소추 반대파)인 김 후보, 홍 후보, 나 후보와 찬탄파(탄핵소추 찬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에 대한 효력이 정지된다.

정지 기한은 김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 분안 선고 전까지다.

앞서 한 대행은 지난 8일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앞서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헌법소원 청구와 가처분 신청을 낸 사건은 마은혁 재판관을 중심으로 지정한 뒤 정식 심판에 회부해 심리를 벌여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여러 단체와 개인도 비슷한 취지의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제기했다.

뉴시스

론을 두고는 김 후보와 나머지 후보 간의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 대행의 출마를 촉구해온 박수영 의원은 이날 김문수 경선 후보 캠프에 합류하며 "김 후보와 한 권한대행의 단일화가 필승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홍 후보와 한 후보, 나 후보 등은 한 대행의 출마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인 만큼 김 후보와 한 대행의 단일화 시나리오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반탄파와 찬탄파는 1차 경선이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0%'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두고도 셈법이 엇갈린다.

반탄파는 여론조사에 역선택방지 장치가 적용되면서 사실상 국민의힘 지지층이 결집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대로 찬탄파는 탄핵 찬성 여론이 높았던 중도층의 표심이 1차 경선 통과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대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찬반 구도와 별개로 4강에 들기 위한 후보들의 각개 전투는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 대행 출마